

예향 초대석-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후배들에 제가 가진 재능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싶었죠”

국립발레단 프리마 돈나 출신으로 37세에 국립발레단 수장에 올라 무려 12년간 단체를 이끈 명실상부 '대한민국 발레계의 대명사' 최태지(61). 그녀는 지난 2017년 광주시립발레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 새바람을 일으켰다. 올 초 연임이 결정돼 2년 더 발레단을 이끌게 된 최태지 예술감독을 만났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친화력에 놀란다.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훨씬 즐거웠고, 썰렁한 분위기가 싫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코미디언이 되면 어떨겠냐”고 했더니 말 다했다. 그래서 그녀와는 대화는 유쾌하다. 발레단 연습실에서는 ‘또 다른 최태지’를 만났다. “연습실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단원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광주시립발레단 연습실에서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최태지 예술감독.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최 감독은 일본 교토 외곽 도시 무학에서 태어났다. ‘무학(舞鶴)’은 ‘춤추는 학’이라는 뜻. 어쩌면 꼬마 ‘최태지’가 9살에 무용을 시작한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문화청 국립장학생 선정이라는 기회가 왔지만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녀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프랑스로 자비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국립발레단의 문을 두드렸고 ‘백조의 호수’ 등 수많은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결혼과 두 아이 출산 등으로 발레단을 떠났던 그녀는 아이 낳고 단원이 된 프리마 발레리나 1호로 다시 무대에 섰고 지도위원을 거쳐 1996년 단장이 됐다.

국립발레단 프리마 돈나 거쳐 12년간 국립발레단 단장 맡아 2017년 시립발레단 수장 취임

공연수당 등급제 등 체질 개선 중 단원들 창작에너지 넘쳐 지원 기대 지난해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연출·의상·무대세트 등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작품 만들어 우리만의 레퍼토리 가져야”



유리 그리고비치가 안무했던 국립발레단 1987년 작 ‘백조의 호수’에서 흑조로 열연중인 최태지 감독.

“젊은 단장”은 관객에게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시작이 ‘해설이 있는 발레’였다. 한명의 관객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제작비 확보를 위해 CEO들을 술하게 만났고 마케팅 등에도 힘을 쏟았다. 물론 가장 기본인 ‘작품 제작’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임했다. 볼쇼이극장의 유리 그리고비치치 안무와 무대 세트 등이 어우러진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등 ‘국립발레단 레퍼토리’를 확립했다.

공연수당 등급제 등 체질 개선 중 단원들 창작에너지 넘쳐 지원 기대 지난해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취임은 그에게 또 한번의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세대가 물러나고 후배들이 해야할 시점이라 고사했어요. 그런데 단원들이 투표를 했고, 물론 전제가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단원들이 와 주변 좋겠다고 하니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후배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조바심을 갖지 않으려 애쓰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원들의 복지 등에 관심을 쏟았다.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이지’ 모습에 힘이 났다. 그녀의 색깔이 제대로 들어간 작품은 2018년 작 ‘백조의 호수’로 국립이 올렸던 유리 버전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찼고, 환호가 쏟아졌다. 스타일을 바꾼 ‘호두까기 인형’, ‘라 실피드’, ‘해설이 있는 발레’ 등 이후 발레단의 공연은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무대가 됐다. 시립발레단은 현재 체질 개선 중이다. 렌트해 입던 의상을 정식 제작하기 시작하

고 댄스 플로어 등도 구비했다. 공연수당 등급제가 실시됐고 아직 말았지만 제작비도 2배 정도 올랐다. 또 한결레에 12만원씩하는 투수즈도 지급하게 됐고 신입단원도 실력이 있으면 바로 수석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만의 레퍼토리를 갖도록 노력해야해요. 예술의 정답에 좋은 작품 보러가는 것처럼 애호가들이 광주에 와서 작품을 보게 해야죠. 그러려면 무용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연출, 의상, 무대세트, 조명 등 모든 게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 감독 취임 후 공연횟수가 늘고, 출연진 구성도 다양해졌다. “무용가는 연습실이 아닌, 무대에서 살아야 한다. 좀 더 많은 무용수에게 기회를 주지”는 건 최 감독이 국립시절부터 고수해온 정책이다.

“다양한 무용수를 무대에 세워 긴장하며 준비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발레단에서도 여러 커플을 주역으로 세우려 해요. ‘해설이 있는 발레’가 인기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무용수를 보여 관객들도 좋아하지만 무용수 자신들도 서로를 견줘보며 선의의 경쟁을 하게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레퍼토리가 아닌, 단원들을 기를 수 있는 작품을 하려 해요. 어떤 작품을 주면 업그레이드가 될까 고민하죠.”

최 감독은 연습실에서는 엄격하지만, 공연 후에는 실수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는다. 가장 괴로운 건 무용수고, 그 무대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역으로 무대에 섰던 최감독은 무엇보다 ‘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단원들도 확고 다날 때 모두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예요. 다 주역이 되고 싶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하죠. 전 발레단의 꽃은 군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은 주역의 테크닉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발레리나가 마치 한사람처럼 움직일 때 큰 감동을 받아요. 무대 인사할 때 주역 무용수가 꼭 군무진에게 인사를 하게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춤을 잘 출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죠.”

최 감독은 공연 때면 객석 뒷자리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무대를 본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브

라보를 외치고, 난리를 치며” 단원들을 응원한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백조의 호수’를 꼽은 그녀는 아늑한 아담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지젤’을 해 보지 못하고 은퇴한 건 참 아쉽다고 했다.

최 감독은 지난해 최고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았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부 ‘장한 어머니상’을 어머니가 수상한 지 딱 20년만이다. 그녀는 “엄마가 없었다면 내가 발레를, 삶을 어떻게 지속했을까 모르겠다”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가서 열심히 했구나, 광주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말해주시는 것 같다”고 했다.

첫 임기 2년은 발레단을 알아가고 단원들을 파악하며 주로 내부에서 활동했다면 올해는 발레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 행정 부서나 외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생각이다. 주변에서 ‘로비스트’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최 감독은 “토슈즈가 나온다면,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면, 발레단에 도움을 준다면 누구에게라도 얹드릴 수 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또 “나야 임기 마치고 떠나지만 진정 발레단을 이끌어 가는 이들은 단원들이니, 우리 단원들이 진정한 프로가 되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오랜만에 ‘호두까기 인형’을 보고 발레단의 변화에 적잖이 놀란 나는 연습실에서 작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최태지 감독과 50명 단원들’이 만들어갈 ‘광주시립발레단’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졌다. 올해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5·18 40주년 기념작품, 인기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이 기다리고 있으며 ‘해설이 있는 발레’도 계속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사, 영업용 냉동·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 품목 제외)
☎ 062)370-9258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점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김 동 일 쉼 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풋젠광주센터
동구 금남로47차과역전철역부근 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풋젠 자석 쿠션 신발
☎ 062)232-6625, 010-3640-6625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함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엄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슬,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 을 귀 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원)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호 판매
☎ 061)334-008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